

내게 너무나 특별한 인일사랑

요즘 크고 작은 SNS 모임이 많다. 초등모임에서부터 여고, 대학, 사회에서 만들어진 모임까지 모두 사이버가 소통의 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활발하다. 이 중에서 가장 다양한 글이 올라와 소통의 재미가 있는 곳은 인일여고 동기밴드다.

함께 공부할 때는 미처 몰랐던 숨은 인재들이 밴드에서 활동을 한다. 가끔 생각이 안 나는 친구도 있지만 몇 번 댓글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여고시절 공유한 추억이 되살아나서 금방 오랜 친구가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인재들이 모이고 모여 인일이 되었으니 그 인일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빛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요즘은 프로필을 쓸 때 고등학교는 쓰지 않는다. 고교 평준화가 되어서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나는 꼭 인일여고를 쓴다. 평준화 이전세대의 습성 때문만은 아니다. 열일곱 살에 만난 인일여고가 내게 준 정신적인 충격은 이후 내 삶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시가 되었지만 내가 자랄 때의 김포는 시골이었다. 중학교 때까지 차를 몇 번 타 보지 않았을 정도다. 그 몇 번도 수학여행이나 학교 행사로 인한 것이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살아 외지 구경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만난 인천과 인일여고와 똑똑하고 잘나고 어여쁜 친구들은 김포 촌 아이인 내게는 영원한 짝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때 키네마 극장에서는 <수산나>가 상영되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여 앉아 스케이트 타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구경도 못해본 피아노 건반을 자연스럽게 누르고, 자유공원으로 송도로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나는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10월 마지막 날을 잊지 못한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그대열에 끼어 송도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 갈대숲에서, 해수욕장에서, 노을 지는 바다를 등지고 사진을 찍었다. 친구들과 간 최초의 나들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중학교 때 친구에게 사진 찍으러 갔었던 이야기를 편지에 썼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 안 나지만 마지막 날인에 '72년 시월 마지막 날에.....'라고 쓴 기억은 선명하다. 그래서 나는 그날이 10월 마지막 날이란 것을 기억한다. 한참 후에 시월의 마지막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이용이 노래 불렀다. 이용보다도 더 먼저 그 날을 경험한 나였다. 어찌다 보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시월의 마지막 날이다.

아무리 인천 사람이고 싶어도 인천에서의 나는 김포 애인데 대학에 들어가니 그때서야 비로소 친구들은 나를 인천 애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는 인천 애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나의 인천 사랑은, 아니 인일 사랑은 다른 친구보다 더 크다.

2004년 홈페이지 초창기 시절에 동문이 모여 11기 최예문 동문이 운영하는 소나무 갤러리로 소풍을 갔었다. 멀리 브라질에서 오신, 지금은 미국에 사신다는 3회 김영희 동문에서부터 후배들까지 모여 내가 사랑하는 인일과 진정으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 날이었다. 돌아와 기쁨에 들떠 홈페이지에 시를 썼다. 그 시를 찾아서 옮겨 본다.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

며칠이 지났건만 소나무 갤러리 만남이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인일의 같은 울타리 안에서 보냈다는 인연으로
한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 가졌던 그 꿈결 같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앞 서 걸어갔던 선배들이,
함께 손잡고 걸었던 동무들이,
뒤 쫓아왔던 많은 후배들이.
이토록 한마음이 되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선배도 동무처럼 후배도 동무처럼
동무는 가족처럼
넓고 푸른 트랙에서 손잡고 뛰어 놀았던 그 황홀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인일의 딸들아!
너는 나무 되고 꽃이 되고 새가 되어라.
나는 동산을 뒤덮는 풀이라도 될 터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일 숲을 이루자.
너는 기둥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신선한 바람이 되어라.
나는 거름이 되어
메마른 이 땅에 울창한 인일 숲을 만들자.
그리하여 달디 단 크고 빛나는 열매를 수확하자!

이제 인일도 성년이 되었다.
인일도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너는 이 나라의 기둥으로 소금으로 거름으로
이 땅의 일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명품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